



[금융] 증시·암호화폐 부진 갈 곳 잃은 투자금 은행에 몰린다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96.58 (-7.66)	코스닥 856.25 (+3.17)
금리 (우대금) 3.046 (+0.135)	환율 (원/달러) 1284.10 (-0.10) (16일)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3D”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외국인 인력마저 기근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촌, 어촌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돌아봐야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는 “역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모색해야한다. 그래야 산업이 유지되고, 생기가 돈다.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이 [외국인 인력 대전환 시급] 시리즈를 통해 외국인 인력, 그리고 관련 정책을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내국인 취업기피→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甲이 된 외국인 근로자 中企, 인력난에 큰 시름

외국인 인력 대전환 시급

❶ 중기, 일손 부족 아우성

내국인들 ‘3D업종’ 기피 현상에 제조업 등 中企, 외국인근로자 의존 태업 등 ‘역갑질’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여파 비전문인력 급감 ‘외국인 쿼터제’ 인력난 부채질

광주광역시에 제1공장을 두고 있는 전자재 회사 거광기업.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을 어렵게 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찾다 찾다 얻은 인원이 다. 공장 일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26일부터 바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고 보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1월 중순부터 사달이 났다.

“갑자기 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한국에 누나가 있는데 (옮겨서)같이 일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안된다고 했다. 얼마나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옮겨달라는 것은 도저히 못들어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같이 온 또다른 근로자는 한국에 와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매달 300만~320만원을 받고 있다며 그쪽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월급을 300만원 이상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너무 이르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했다. 며칠후 이들을 포함해 4명이 아예 사발까지 하고 출근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천불이 난다.” 거광기업 문수용 회장의 말이다.

경기 여주에 있는 플라스틱·파지 등 재활용업체 구로종합무역. 이 회사는

한국인 직원 5명,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5명, 그리고 한때 ‘조선족’이라고 불렸던 재중 교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늘어나는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쿼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구로종합무역 이규영 대표는 “한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차로에 구인광고도 내도 오질 않는다. 일하는 재중 교포들은 60~70대가 됐다. 나이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도 외국인 직원이 애를 먹인 경험이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그 직원이 태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태업하는 그의 사업장 이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한지 6개월만의 일이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첫 3년간 총 3회의 사업장 이동을 허락하고 있다. 며칠을 일하다 옮겨도 ‘3년·3회’만 지키면 된다. 숙련 일꾼이 절실한 기업 현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옮겨달라고 생떼 쓰며 태업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안쓰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떠난 외국인 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냥 비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인을 배정해줄 때까지 정처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 현실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 인원 가운데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주로 일하는 비전문인력은 3월 말 현재 33만 7994명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위기·개혁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 당부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생안정 위해 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 후 열세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국민·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경제

와 위기는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천명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연설 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10시 23분까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했다. ‘국민’과 ‘개혁’은 각 7번, ‘민생’과 ‘협력’은 각 5번, ‘도전’과 ‘의회주의’는 각 4번, ‘초당적 협력’과 ‘안보’는 각 3번 순이었다.

추경안에 방점을 찍은 시정연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의식한 듯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추경안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력과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으로 걸어갔고, 연단에 올라서도 본회의장 중앙과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인사를 보내는 등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추경-금리 긴밀 공조… 최적 정책조합 찾을 것”

추경호 부총리-이창용 총재 첫 회동 고물가 대응, 정책공조 강화하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59조원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엇박자 조짐마저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 후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자극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양한 물가안정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국민의 실질 소득을 받쳐주는 것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 물가나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 한은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재정 담당 추 부총리와 통화 담당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만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5%에 육박하며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인상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기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어려워져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3면에 계속)

/원승일 기자 won@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NH농협은행 (4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회의원 선거,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4파전
▲ 윤호중, 김건희에 ‘함박미소’ 이유… ‘파평윤씨니 도와달라 해’ /사진 뉴스스

▲ ‘처럼회’ 김용민 “새 국회의장은 ‘입법권’ 침해 말길”
▲ 민주, 송영길 제안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조기 입법



▲ 이인영 “尹정부, 북한에 코로나 협력 공식 제안하길”
▲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에 신중론… “도민·당원 의견 경청중” /사진 뉴스스